HandySCAN MAX로 건설 작업 효율 극대화

Eberhard Unternehmungen은 토목 공사, 철도 및 공항 건설, 발굴, 철거, 재활용, 오염된 부지 정화 등의 다양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

기존 수동 측정의 한계를 느낀 이 기업은 건설 및 유지 보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크레아폼의 핸디스캔 맥스를 도입하면서 수동 측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소모와 오류를 줄이고, 견고한 장비 덕분에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

수동 3D 측정의 한계



이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부품을 수동으로 3D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기록해 왔습니다.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은 시간 소모가 커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합니다. 이로 인해 생산 지연과 긴 다운타임이 발생하여 보다 현대적인 3D 측정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

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평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:

ダ 속도

☑ 외부 전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

❤️ 사용하기 쉽고 재작업이 쉬운지

❤ 모든 환경에 대한 적합성

궁극적인 목표는 생산 중단을 줄이고, 부품 설치 및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 및 조립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

솔루션: 3D스캐너 도입으로 건설 작업 효율 극대화

이 기업은 시장 분석을 거쳐 **사용 편의성, 유연성, 신속성, 그리고 대형 부품의 정확한** 역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크레아폼의 핸디스캔 맥스를 선택했습니다. 또한 Scan-to-CAD 소프트웨어 모듈인 VXmodel과 종합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도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

이 3D스캐너의 간편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덕분에 팀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. 초기에는 스캔 과정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, 곧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구조물의 3D 측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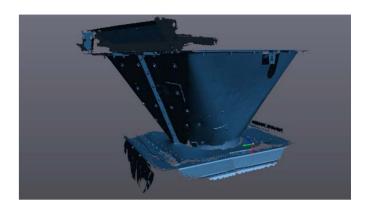
온전히 교육을 마친 후, 더 까다로운 과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.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부품 중 사용 수명이 다한 깔때기(transfer funnel)를 교체해야 했으나 초기 도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| 함□ 한□스캔 | 맥스 | 3D스캐너를 | 이용해 축정물에 마커를 배치하고 3D스캔을 수행 했습니다. 스캔 | 데이□터는 VXmodel에서 처리되어 | 평면과 | 축을 생성하고 CAD로 내보내어 최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. 이러한 원활한 설정을 통해 필요한 제작 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





결과: 3D스캐너로 역설계 워크플로우 가속화



크레아폼의 3D 측정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부품 교체 및 유지 보수 프로세스가 크게 최적화되었습니다.

팀은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며,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등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. 스캐너의 정밀 측정 덕분에 부품을 재제작할 위험이 사라지고, 교체 부품이한 번에 정확히 맞춰지게 되었습니다. 또한 장비의 견고함으로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, 이를 통해 계획 및 설치 지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

이 팀은 향후 모든 교체 및 유지 보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최신 기술로의 전환이 운영 효율성을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

"Creaform의 기술은 먼지에 민감하지 않고 최적의 스캔 범위를 제공하며, 역설계를 위한 정확한 1:1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. HandySCAN MAX와 VXmodel 덕분에 데이터 수집이 간소화되어 최종 결과를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."

- 장비/재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Markus Eggenberger